

여대생의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및 여가이득과의 구조적 관계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amily Leisure Activities, Family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Benefit of Women's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Leisure Consumption Propensity

주영애, 홍영운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Young-Ae Ju(jyoungae@sungshin.ac.kr), Young-Yun Hong(katarina0320@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및 여가이득과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2016년 5월9일~ 5월30일까지 설문조사 한 257부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자료처리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여가활동은 가족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가족여가만족이 여가이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여가활동이 여가이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및 여가이득의 차이를 보면,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의 영향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가치추구 여가형이 가족여가활동을 할수록 가족여가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소극적 이상추구 여가형, 실리추구 여가형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소비유형에 따라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가족여가활동 | 여가소비유형 | 가족여가만족 | 여가이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amily leisure activities, family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benefit of women's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leisure consumption propensity. Data was analyzed with reliability analysis, cross tabu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ith SPSS 18.0 and AMOS 18.0.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amily leisure activities had significant effect on family leisure satisfaction and significant moderation effect according to leisure consumption propensity. Family leisure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leisure benefit, while family leisure activities didn't have influence on the leisure benefit.

■ keyword : | Family Leisure Activities | Leisure Consumption Propensity | Family Leisure Satisfaction | Leisure Benefit |

* 본 논문은 2016년 전기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7년 04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7월 06일

수정일자 : 2017년 06월 05일

교신저자 : 홍영운, e-mail : katarina0320@hanmail.net

1. 서론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1]에 따르면 혼자 여가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2014년(59.8%→56.8%)보다 늘어난 반면 가족과 여가를 즐긴 사람은 2014년(29.7%→32.1%)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응답자 중 70% 이상이 혼자 여가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개인주의 발달은 가족의 연대감이 약화되면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는 시간도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족여가는 ‘탈가족화’ 되는 사회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가족들이 함께 하는 여가 대신 개별적 여가 형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찾는 데에 중요한 역할[2]을 하는 가족여가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확대[3]되고 있다. 이는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예방과 축소를 위한 대안이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생애주기적 관점 또는 사회역할론 측면에서 볼 때 대학생 시기는 가장 활발하게 자발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이며 계층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활동 향유기회가 많고 그 가치를 매우 높게 보는 집단[4]이다. 대학시절에 경험한 여가가 평생 여가활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5]. 따라서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은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이 시기의 여가 커리어는 생애주기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이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생활의 주체로서 가족여가를 선택하고 향유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여대생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 가족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며, 가족의 기능 또한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 가족의 여가기능이 어떻게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가족 형성[6]뿐 아니라, 삶의 질[7], 가족의 지속 가능성[8] 등에까지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족여가는 가족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적 여가라는 측면에서 특히 여성의 여가는 순수여가라기 보다는 준여가, 반여가의 속성을 지닌다[8]. 즉 가정에서 여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성역할과 책임감으로 가족을 위한 여가를 보내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큰 여대생들은 여가제약이 예측되는 결혼과 가족생활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도 고민하게 될 것이다.

반면 여성이 겪는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통로로 여가경험은 여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 혹은 역할을 반영[9]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여가는 가족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양한 학습활동과 사회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7]. 따라서 여대생의 긍정적인 가족여가경험은 현재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가족여가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미래 가족여가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의 일상에서 소비주의 문화가 가장 잘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여가생활 영역이다[10]. 여가소비는 시간과 금전의 소비를 동시에 요구하는 여가활동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가소비성향은 여가에 있어 금전적인 소비활동을 나타내는 심리 및 행동상의 일정한 경향이라는 의미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가소비성향은 다양해지고 급변하는 여가환경에서 여가소비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또한 현재의 여가소비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가능[11]하게 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단순한 여대생의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여대생의 여가소비성향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여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여가이득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접근방식은 여대생의 여가가 가족여가활동과 어떤 관계로 형성되고, 여가이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게 되므로, 여대생 여가와 가족여가의 관계성을 밝혀 보는 데에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단순히 여가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여가를 통해 자신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득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이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12]를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

로 우리 사회에서 가족구성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여대생을 대상으로 가족여가활동, 가족여가만족, 여가이득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더불어 가족여가활동을 공유하는 여대생을 여가소비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가족여가활동, 가족여가만족, 여가이득의 구조적 관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여가

가족여가란 여가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가족이 기본 단위가 되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를 말한다. 가족여가의 참여 가족 수에 따라, 가족구성원 모두 참여, 2인의 가족구성원 참여,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의 여가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가족들은 여가활동을 함에 있어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가족여가활동은 가족구성원들의 결속력과 단합을 유지시키고, 가족생활의 질과 만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13].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으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이해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 소속감을 가지게 해주며 자연스럽게 가정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인간은 가족의 영향으로 어떤 특정한 여가활동에 사회화된다[14].

가족이라는 변수는 여가만족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가족이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여가생활을 즐길수록 또한 가족여가활동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개인·가정에 주는 만족도는 높으며, 결국 이는 가족 간의 이해를 높이고 그 가정의 행복지수도 높여준다[15].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하면 생활만족과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영향을 주며, 가족간의 친밀도가 높아진다[16].

그 동안 가족여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가족여가만족[6][17][18], 가족여가와 가족관계[2][19], 가족여가

활성화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7][20-22]가 주류를 이루어져 왔다.

가족여가만족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시간[17]이 많을수록, 가족여가에 대한 자발적 동기[6]수준이 높고, 가족 건강성[18]이 높을수록 가족여가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여가와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활동 동기가 가족관계의 질에 영향[2]을 주거나, 여가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부모-자녀관계 적응도는 높게 나타났고,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모두 적응도[1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가족여가활동은 가족의 행복 지수를 높여줄 때 생활만족도나 여가만족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 요인이 된다.

2. 여가소비성향

현재 여가학적 관점에서도 소비성향 연구는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소비생활에서 소비주의문화가 가장 잘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이 여가생활영역이기 때문이다[23].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여가소비성향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여가생활을 결정짓는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가참여가 대중화되면서 여가참여의 계층적인 구분이 세분화되고, 소비지향적인 여가참여가 증가하게 되면서 한국의 여가소비는 복잡한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24].

김동호(1996)는 소비성향을 개인·심리적 영향요인, 사회·환경적 영향요인으로 나누어서 개인·심리적 영향요인에는 동기, 태도, 학습, 기억, 개성, 가치, 라이프스타일로 구분하였고, 사회·환경적 영향요인으로는 문화, 사회계층, 준거집단, 가족, 소비자사회화, 구전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한 개인이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사용에 있어서 개인·심리적 요인들과 문화·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심리적 행동적 표출 양식이라 하였다[25].

윤채빈·박수정·김민규(2017)는 여가소비성향을 과시성, 효율지향성, 유행민감성, 공익지향성, 정보지향성 요인을 군집화하여 ‘실용적 소비형’, ‘적극적 소비형’, ‘과시적 소비형’, ‘소극적 소비형’으로 유형화하였고 직

장인의 여가소비성향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였다[26]. 박민규·박순희(2008)는 향유지향, 효율지향, 정보지향, 공익지향 요인의 여가소비성향을 ‘공익추구형’, ‘충동형’, ‘개인주의형’, ‘합리성추구형’으로 유형화 하여 여대생을 세분화하였고 여가인식과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27].

여가소비성향은 여가에 있어 금전적인 소비활동을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심리와 행동상의 일정한 경향[28]이며, 소비를 경제적 관점과 더불어 사회적 관점에서 인식하려 노력하는 것이므로 심리 및 행동적 여가소비성향은 여가소비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다[11][28].

3. 여가이득

여가이득은 여가활동 및 여가경험을 통해 신체적으로나, 사회문화, 경제, 환경 부분 등에서 얻는 다양한 이득을 말한다[29]. 여가활동 경험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여가만족의 개념은 이전까지는 심리적 이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여가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자아 실현적 측면과 같은 다른 여러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이득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30].

장경수(2016)는 여가이득을 심리적 이득, 자기개발 이득, 개인적 만족 이득, 신체적 이득, 사회적 이득으로 구성하였으며[31], 임재구(2016)는 여가이득을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 등의 심리적 이득, 혈액순환, 피로회복, 체력 향상 등의 신체적 이득, 자아감, 자아실현, 윤택함 등 자기개발 이득, 사람들과의 소통, 친밀감, 사회적 지지,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의 사회적 이득, 자신감과 경쟁력, 겸손, 리더십 등의 개인적 이득으로 범주화하였다[32].

여가이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여가몰입과 여가이득과의 인과관계[30-34], 여가유능감과 여가이득과의 인과관계[35-36], 여가태도[37-38], 여가인지[32], 여가만족[12]과 여가이득과의 관계 등이 있다.

장경수(2007)의 연구에서 여가몰입은 여가이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가이득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이상덕·임영삼(2011)의 연구에서는 기숙형 대학생의 생활만족은 사회적 이득, 심리적 이득, 개인만족 이득 그리고 신체적 이득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이계석·최성범·한태용(2014)의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여가만족은 여가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여가몰입은 여가이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만족은 여가이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생활만족 및 여가만족, 여가몰입 등은 여가이득에 관련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4.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여가이득의 관계

가족여가만족이란 가족의 여가 경험이나 상황에 대해 현재 즐겁거나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가족의 여가활동 수준과 형태는 가족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9].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공유여가활동과 가족만족도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40]이 확인되었고, 가족여가활동이 많으면 전반적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39]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즉 가족여가의 공유정도가 높을수록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의 증진은 가족구성원 개개인과 가족 전체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40].

여가만족과 여가이득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여가만족의 결과 요인으로 여가몰입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가몰입은 여가이득에 영향을 미치며, 여가몰입은 여가만족을 통해 형성되므로, 여가만족이 여가이득에 영향[12]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Driver(1990)는 여가이득이란 여가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써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가 참여자가 부정적 여가 경험을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여가를 통한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경험이 최종적으로는 여가이득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41].

이를 종합해 보면 가족여가활동, 가족여가만족, 여가

이득은 서로 상호 관련이 있으며 각 변인을 상호 보완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여가활동이 가족여가만족에 영향을 주고, 가족여가만족이 결국에는 여가이득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본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여가소비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여가이득과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여대생의 여가소비유형에 따라 가족여가활동, 가족여가만족과 여가이득의 차이는 있는가?
- 연구문제2. 여대생의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및 여가이득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여대생의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및 여가이득의 구조관계에서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차이는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6년 5월9일~ 2016년 5월30일까지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대전에서 거주하는 여대생으로 편의방식으로 표본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259부 중에서 부정확하게 응답하였거나 부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총 25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여가소비성향[11][27], 가족여가활동[2][39], 가족여가만족[39], 여가이득[30][35][41] 문항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여가소비성향은 21문항, 가족여가활동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여가만족은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여가이득은 심

리적 이득, 신체적 이득, 사회적 이득, 개인적 이득의 4개 하위변인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측정변수들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인을 위해 여가소비성향에 대한 신뢰도분석(Cronbach's α)과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그 결과 요인적재치가 0.5이상이며 신뢰도는 향유지향(.608)을 제외하고는 0.7이상으로 모든 항목에 내적일관성이 확인되었다.

표 1. 여가소비성향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문항	요인적재치	신뢰도
효율지향	여가상품 소비에 있어서도 꼭 가성비를 생각한다.	.806	.742
	갖고 싶은 여가상품이 있을 때 상세하게 정보를 모아 살펴본다.	.722	
	여가활동비 지출 계획 시 수입 대비 적당함을 생각한다.	.703	
	구입한 여가상품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701	
공익지향	여가활동비 지출 시 주의사람들의 조언이나 광고 등을 참조한다.	.543	.723
	값이 비싸더라도 환경에 덜 오염시키는 여가상품을 구입한다.	.872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좀 더 비싼 여가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802	
향유지향	가능하다면, 환경과 사회이익을 고려한 여가상품을 고른다.	.712	.608
	유행하는 여가상품이 있으면 따라서 구매하는 편이다.	.717	
	고급 여가상품을 갖고 있을 경우, 남이 알아봐 주면 즐겁다.	.708	
	새로운 여가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다.	.649	
	주위사람들이 이용하는 여가상품을 눈여겨 보는 편이다.	.585	

본 연구의 여가소비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표 2]. 그리고 추출된 3개 군집의 여가소비유형 군집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효율지향($F=22.692, p<.001$), 공익지향($F=157.543, p<.001$), 향유지향($F=106.653,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군집1은 공익지향적인 성향을 제외하고는 효율지향적이며 향유지향적인 여가소비성향이 높아서 '실리추구 여가형'으로 명명하였으며, 70명이 이에 해당되었다. 군집2은 대체로 소극적인 여가소비성향을 가지나 공익

지향 성향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소극적 이상추구 여가형’으로 명명하였으며, 96명이 분류되었다. 군집3은 효율지향적인 성향을 제외하고는 여가소비성향이 평균보다 높아 적극적으로 여가생활을 하는 집단으로 향유지향적인 여가소비성향이 높은 편이나 특히 공익지향성향이 높으므로 ‘가치추구 여가형’으로 명명하였으며, 91명으로 분류되었다.

표 2. 여가소비유형에 대한 군집분석

여가 소비 성향	평균	군집1 (n=70)	군집2 (n=96)	군집3 (n=91)	F-value
		평균	평균	평균	
효율 지향	3.60	3.79	3.51	3.51	22.692 ***
공익 지향	2.87	2.29	2.81	3.50	157.543 ***
향유 지향	3.19	3.46	2.64	3.46	106.653 ***

***p<.001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여가이득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단일항목으로 구성된 가족여가만족을 제외하고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확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우선 여가이득은 각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도구의 총합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하위요인을 구성개념의 측정변수로 변환하였다. 가족여가활동 항목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초기 분석에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을 토대로 6개 항목 중 설명력이 낮은 1개의 항목을 제거한 후 5개 항목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 요인	측정 변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R	A V E
		경로계 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가족 여가 활동	놀이/오락	1.000	.637	-	-	0.769	0.403
	관람/감상	1.323	.750	.145	***		
	관광	1.385	.779	.149	***		
	취미/교양	.990	.576	.131	***		
여가 이득	사교	.992	.585	.130	***	0.923	0.750
	심리적이득	1.000	.696	-	-		
	신체적이득	1.225	.686	.128	***		
	사회적이득	1.146	.730	.114	***		
	개인적이득	1.261	.839	.116	***		

***p<.001

검증 결과 구성개념과 측정치의 계수가 모두 0.4이상이며,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역시 0.7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는 가족여가활동을 제외하고는 0.5이상을 보여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했다.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역시 타당한 모형이다 (chi-square=61.134/df=26 (p=.000), RMR=.033, GFI=.952, CFI=.953, NFI=.922, RMSEA=.073).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적용하였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여가소비성향에 따른 유형화를 하기 위하여 K-means 군집분석,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및 여가이득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여가이득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가소비유형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학년으로는 1학년이 106명(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82명(31.9%), 4학년 42명(16.3%), 3학년 27명(10.5%) 순으로 구성되었다. 거주유형으로는 부모님과 거주가 167명(65.0%)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거주가 80명(31.1%), 친척집에 거주 7명(2.7%), 기타가 3명(1.2%)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여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스트레스해소가 140명(54.5%)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개인적

즐거움 129명(50.2%), 대인관계 및 교제활동 83명(32.3%), 건강유지 72명(28.0%), 일의 능률향상을 위한 재충전 66명(25.7%), 자아실현의 수단 27명(10.5%),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습득 24명(9.3%), 기타 2명(8.0%)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로는 시간부족이 230명(89.5%)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경제적인 부담이 77명(30.0%), 여가활동 관심 부족이 54명(21.0%), 관련 정보 부족 26명(10.1%), 관련 시설 부족 22명(8.6%), 관련 프로그램 부족 19명(7.4%), 함께 할 사람 부재 14명(5.4%), 기타 1명(4.0%)으로 나타났다. 윤소영(2009)의 연구에서도 가족여가활동을 방해하는 주요 제약요인으로 모든 연구에서 일관되게 가족공동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와 여가활동에 지출하는 비용부담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42].

여가이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족 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은 여가소비유형의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가이득은 심리적 이득(p<.05), 신체적 이득(p<.001), 사회적 이득(p<.001), 개인적 이득(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심리적 이득에서는 ‘가치추구 여가형’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실리추구 여가형’, ‘소극적 이상추구 여가형’ 순으로 여가이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이득에서는 ‘가치추구 여가형’, ‘실리추구 여가형’, ‘소극적 이상추구 여가형’ 순으로 여가이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득과 개인적 이득에서는 ‘가치추구 여가형’과 ‘실리추구 여가형’이 ‘소극적 이상추구 여가형’ 보다 여가이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257)

구분		N(%)	구분		N(%)
학년	1학년	106 (41.2)	거주 유형	부모님과 거주	167 (65.0)
	2학년	82 (31.9)		친척집에 거주	7 (2.7)
	3학년	27 (10.5)		혼자거주	80 (31.1)
	4학년	42 (16.3)		기타	3 (1.2)
여가 의미	개인적 즐거움	129 (50.2)	가족 여가 활동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	77 (30.0)
	스트레스 해소	140 (54.5)		시간 부족	230 (89.5)
	건강 유지	72 (28.0)		관련시설 부족	22 (8.6)
	대인관계 및 교제활동	83 (32.3)		관련 프로그램 부족	19 (7.4)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습득	24 (9.3)		관련정보 부족	26 (10.1)
	일의 능률향상 재충전	66 (25.7)		함께 할 사람부재	14 (5.4)
	자아실현 수단	27 (10.5)		여가활동 관심부족	54 (21.0)
	기타	2 (8.0)		기타	1 (4.0)

2.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가족여가만족과 여가이득의 차이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가족여가만족과

표 5.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가족여가만족과 여가이득의 차이

변수	실리추구 여가형	소극적 이상추구 여가형	가치추구 여가형	F-value	
	M(SD)	M(SD)	M(SD)		
가족여가활동	놀이/오락	3.00 (1.274)	3.19 (1.019)	3.24 (1.036)	1.020
	관람/감상	3.10 (1.229)	3.06 (1.094)	3.37 (1.029)	2.102
	관광	2.79 (1.238)	2.75 (1.076)	2.95 (1.168)	.734
	취미/교양	2.71 (1.218)	2.83 (1.102)	2.96 (1.134)	.888
	사교	2.06 (1.062)	2.17 (1.033)	2.07 (.975)	.317
가족여가만족	3.31 (.860)	3.34 (.779)	3.37 (.871)	.572	
여가이득	심리적 이득	4.09 (.511)ab	4.00 (.605)a	4.25 (.568)b	4.694*
	신체적 이득	3.39 (.737)b	3.15 (.664)a	3.61 (.682)c	10.313***
	사회적 이득	3.91 (.613)b	3.68 (.661)a	4.04 (.551)b	8.337***
	개인적 이득	3.84 (.600)b	3.60 (.576)a	3.97 (.575)b	9.511***

***p<.001 *p<.05

본 연구의 결과로 향유지향적이며 공익지향적인 성향이 높은 여가소비성향을 가질수록 효율지향적인 여가소비성향을 보여주거나 소극적 여가소비성향을 가진

집단보다 여가이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가이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대생들이 여가를 적극적으로 향유함으로써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 특히 생애주기의 어느 시기 보다도 대학생들이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대생은 자신의 소비성향에 맞는 여가활동 경험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이득을 얻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및 여가이득의 관계

가족여가활동, 가족여가만족, 여가이득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모형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지수는 $\chi^2=73.610$, RMR=.034, GFI=.949, NFI=.915, TLI=.933, CFI=.951, RMSEA=.069로 나타났다.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을 수용하였다.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및 여가이득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그림 1]과 같다.

표 6. 구조모형분석 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p
가족여가활동 → 가족여가만족	.504	.099	6.832	***
가족여가만족 → 여가이득	.172	.037	2.125	.034.*
가족여가활동 → 여가이득	.069	.054	.783	.434

모형적합도: $\chi^2=73.610(p=.000)$, $df=33$, RMR=.034, GFI=.949, NFI=.915, TLI=.933, CFI=.951, RMSEA=.069

***p<.0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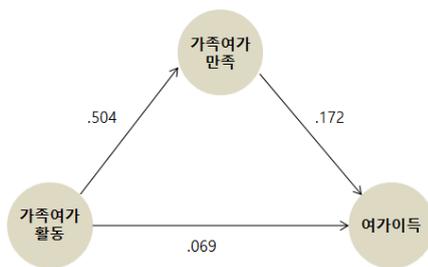


그림 1. 구조모형

가족여가활동이 가족여가만족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유의한 영향(표준화계수=.504, t=6.832,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여가만족이 여가이득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유의한 영향력(표준화계수=.172, t=2.125,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여가활동이 여가이득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 가족여가활동이 여가이득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유형의 가족여가활동이 가족여가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여가활동의 하위요인별 가족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표 7]. 그 결과 사교활동(표준화계수=.228, t=3.497, p<.001), 관람/감상활동(표준화계수=.204, t=2.789, p<.01), 관광활동(표준화계수=.152, t=2.052, p<.05) 순으로 가족여가만족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놀이/오락활동과 취미/교양활동은 가족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여가활동 중 친구나 친지만남, 카페이용, 외식 등의 사교활동을 할 때 가족여가만족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는 영화, 연극, 공연, 뮤지컬 관람,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 관람 등의 가족여가활동이 가족여가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놀이공원, 해외여행, 국내여행, 드라이브, 축제참가, 피크닉 등의 관광활동은 가족여가만족에 가장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떠한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 가족여가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지은(2011)의 아동기 가족의 가족여가활동의 실태와 가족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여가활동을 한 후 가족여가만족도가 높아지는 것[39]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가족여가활동 중에서는 문화예술 관람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 활동이 가족여가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39]으로 나타나 관람/감상활동과 관광활동이 가족여가만족에 영향을 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계석 외(2014)의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여가만족이 여가이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12]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여가만족이 여가이득을 형성할 만큼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추후 재확인 검증이 필요하다.

표 7. 가족여가활동 하위요인별 구조모형분석 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p
놀이/오락 →가족여가만족	.091	.057	1.365	.172
관람/감상 →가족여가만족	.204	.056	2.789	.005**
관광 →가족여가만족	.152	.056	2.052	.040*
취미/교양 →가족여가만족	-.090	.051	-1.389	.165
사교 →가족여가만족	.228	.052	3.497	***
가족여가만족 →여가이득	.205	.036	2.656	.008**
놀이/오락 →여가이득	-.029	.032	-0.356	.722
관람/감상 →여가이득	.000	.032	-0.004	.997
관광 →여가이득	.056	.032	.623	.534
취미/교양 →여가이득	.125	.029	1.569	.117
사교 →여가이득	-.090	.030	-1.106	.269

모형적합도: chi-square=48.651(p=.000), df=20, RMR=.018, GFI=.965, NFI=.944, TLI=.921, CFI=.965, RMSEA=.075

***p<.001 **p<.01 *p<.05

가족여가활동이 여가이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족여가만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Bootstrap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여가활동에서 가족여가만족을 거쳐서 여가이득으로 가는 경로에서 가족여가만족의 완전매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가족여가활동이 직접적으로 여가이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가족여가만족을 통해 여가이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가족여가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며 가족여가만족이 커지면 여가이득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이 나타났지만, 가족여가활동은 여가이득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한다고 여가이득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여가활동으로 인한 가족여가만족이 있어야만 여가이득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여가이득의 관계에서 여가소비유형의 조절효과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및 여가이득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여가소비유형을 조절효과로 적용하여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경로계수의 차이는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 간 카이제곱(χ^2) 값의 차이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가족여가활동에서 가족여가만족으로 가는 경로, 가족여가만족에서 여가이득으로 가는 경로, 가족여가활동에서 여가이득으로 가는 경로에서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8][그림 2].

표 8.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집단 간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 비교

경로	χ^2	df	$\Delta\chi^2$	Δdf	p
기준모델	143.197	99			
제약 모델 가족여가활동 → 가족여가만족	152.574	101	9.376	2	0.009**
가족여가만족 → 여가이득	144.727	101	1.530	2	0.465
가족여가활동 → 여가이득	143.672	101	0.475	2	0.789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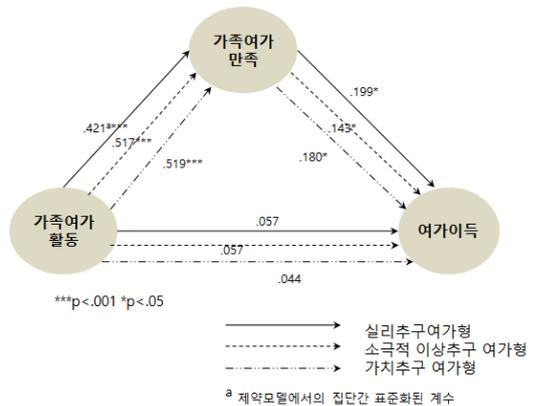


그림 2. 여가소비유형 집단 간 구조모형 비교

그 결과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의 영향 관계 ($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치추구 여가형’($\beta = .519$)은 가족여가활동에서 가족여가만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소극적 이상추구 여가형’($\beta = .517$) 집단, ‘실리추구 여가형’($\beta = .421$) 집단 순으로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적극적이며 가치를 추구하는 여가소비 성향을 가지는 집단과 소극적이며 공익적인 여가소비 성향을 가진 집단이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효율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여가소비 성향을 가진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의 여가소비유형화에 따른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및 여가이득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여가활동은 몇몇 여가활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여대생의 여가소비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대생의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가족여가만족과 여가이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가이득에서는 심리적 이득, 신체적 이득, 사회적 이득, 개인적 이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심리적 이득과 신체적 이득에서는 ‘가치추구 여가형’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실리추구 여가형’, ‘소극적 이상추구 여가형’ 순으로 여가이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득과 개인적 이득에서는 ‘가치추구 여가형’과 ‘실리추구 여가형’이 ‘소극적 이상추구 여가형’보다 여가이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들이 적극적으로 여가소비생활을 하며, 공익적이며 향유적인 여가소비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 등의 심리적 이득, 혈액순환, 피로회복, 체력 향상 등의 신체적 이득, 사람

들과의 소통, 친밀감, 사회적 지지,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의 사회적 이득, 자신감과 경쟁력, 겸손, 리더십 등의 개인적 이득에서 긍정적인 이득을 얻게 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대생들이 적극적으로 향유지향적이고 공익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여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여가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변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이나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영숙(2008)의 연구에서도 여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높아졌음이 확인되었다[43].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둘째,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및 여가이득의 구조적 관계에서 가족여가활동이 가족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가족여가만족이 여가이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여가활동이 여가이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여가활동이 여가이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족여가만족의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확인하여 가족여가만족이 여가이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대생들이 가족과의 여가활동을 하면서 여가이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여가를 통한 만족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단순히 가족활동 공유 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가족여가활동을 통한 만족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족여가활동 하위요인별 가족여가만족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교활동, 관람/감상활동, 관광활동 순으로 가족여가만족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여가활동 중 가족여가만족에 가장 영향력이 큰 활동은 친구나 친지만남, 카페이용, 외식 등의 사교활동인 것으로 나타나 여대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가족 외식이나 카페에서의 사교적인 여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관람/감상활동은 정적 여가인 반면 관광활동은 동적이며 적극적인 여가의 형태로 볼 때 여대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정적인 여가 형태인 관람/감상

활동이 더 가족여가만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대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들은 중년이므로 여대생-중년기 가족의 가족여가로 공통관심사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여가만족도가 높은 사교적인 여가나 정적인 여가활동으로 여가이득을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개발하고 가족구성원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공유 활동을 통해 가족여가만족을 하게 되면 가족 간에 친밀감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여대생들이 가족여가활동을 통해서 여가이득으로 인식되므로, 가족여가활동이 가족여가만족과 여가이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과정이 될 수 있다.

셋째,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및 여가이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의 영향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치추구 여가형’, ‘소극적 이상추구 여가형’, ‘실리추구 여가형’ 순으로 가족여가활동으로 인한 가족여가만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대생이 어떤 여가소비유형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족여가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가치추구 여가형’은 비록 가족여가활동으로 인한 가족여가만족이 다른 집단보다 높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족여가활동 수준이 높지는 않다. 공익적이고 향유지향적인 여가소비성향이 높은 집단이므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유행하는 여가상품으로 가족여가활동 수준을 높이고 가족여가만족으로 인한 여가이득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극적으로 여가소비활동을 하는 ‘소극적 이상추구 여가형’은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에서 만족도가 높은 큰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소극적인 여가활동으로 여가이득을 얻지 못하는 여대생도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을 통해 여가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지향적인 여가보다는 가족여가 또는 공동체 여가를 향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익적인 여가소비성향이 높은 집단이므로 환경과 사회

의 이익을 고려하는 가족여가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여가 향유를 할 필요가 있다.

‘실리추구 여가형’은 가족여가활동 수준과 가족여가활동으로 인한 가족여가만족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이들 집단에서는 우선 가족여가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식 변화와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여가소비성향이 높으므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한 여가상품으로 가족여가활동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여대생들이 가족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시간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이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가족여가활동은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바쁜 삶 속에서 가족구성원들의 시간적 여유의 부재가 가족여가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학업, 아르바이트, 대외활동 등에 지친 여대생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일상적인 여가의 즐거움을 통해 삶의 행복을 갖도록 하는 경험을 가족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여가란 별도의 여가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평소에 틈틈이 할 수 있는 일상적 행위라는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여가와 관련한 교육을 통해서 가족여가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여가소비유형을 구분하여 가족여가활동이 가족여가만족과 여가이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가소비유형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기초적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여가소비유형과 라이프스타일 등을 더 세분화하여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나 한계점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서울과 대전의 여대생으로 한정하여 전체 여대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연구대상도 확대하여 보다 일반화 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 규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위 변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가이득의 하위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힌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여가이득의 관계를 토대로 하여 여가이득을 높일 수 있는 추가변수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여가활동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가족여가활동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가족여가만족, 여가이득의 관계도 밝혀진다면 가족여가에 있어서 어떻게 의견을 통합하여 활동할 때 가족여가만족과 여가이득을 높일 수 있을지를 밝혀, 가족여가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여가활동은 확연히 다른 것이므로 다양한 가족의 유형과 가족구성원에게 유용한 여가활동과 프로그램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 최길례, 가족의 여가 활동이 정서적 역동성과 가족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 안병수, “가족여가 활동의 사회적 의미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8권, 제1호, pp.3-12, 2007.
 [4] 박영숙, 김종수,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대학만족에 대한 분석,” 대한사회체육학회지, 제12권, 제0호, pp.503-514, 1999.
 [5] 황선환, “대학생의 여가활동으로서 스포츠 미디어 선택 요인이 인터넷 스포츠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3호, pp.244-251,

2008.
 [6] 문숙제, 윤소영, 윤지영, “가족여가의 의미와 동기에 따른 여가 만족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1호, pp.31-39, 2005.
 [7] 박수정,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소고,” 여가학연구, 제6권, 제2호, pp.1-14, 2008.
 [8] 황희정, “가족여가문화에 내재된 가족 담론의 위협성 고찰- 가족여가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제20권, 제2호, pp.117-134, 2008.
 [9] 고동우, 홍경완, 문상정, 오송대, “여성의 여가 경험: 탈출인가 저항인가?,” 호텔관광연구, 제36권, 제0호, pp.16-35, 2010.
 [10] 양경민, 모바일콘텐츠 이용자의 여가소비성향과 이용특성,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1] 김종순, 직장여성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소비성향 유형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2] 이계석, 최성범, 한태용,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여가만족이 여가몰입 및 여가이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제53권, 제2호, pp.423-431, 2014.
 [13] 고미영,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여가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4] G. Bammel and L. L. Burrus-Bammel, “Leisure and human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8, No.2, p.135, 1996.
 [15] 윤소영, 윤주, 가족여가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16] M. S. Hill,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A multidisciplinary hypothesi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9, No.4, pp.427-451, 1988.
 [17] 김필숙, 기혼남녀의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도에 따른 가족관계 적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8] 송진숙, 이영관, “대전지역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가족여가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여가 만족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19

- 권, 제2호, pp.183-194, 2007.
- [19] 신충식, 박정열, “오토캠핑이 가족여가만족, 생활만족, 가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여가학연구, 제11권, 제1호, pp.139-157, 2013.
- [20] 김지혜, *가족 중심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1] 정옥희, *도시정부의 가족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과천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2] 이수연,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 여가스포츠 참여 활동 및 활성화 방안,”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8권, 제2호, pp.102-113, 2014.
- [23] 제미경, 서정희, 김민정, “여가소비 평가기준유형과 소비주의 성향,” 마케팅관리연구, 제6권, 제2호, pp.127-145, 2001.
- [24] 이철원, 여인성, “여가의 민속지학적 해석: 여가 연구의 뉴 패러다임,” 한국체육학회, The 2000 Seoul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pp.1449-1556, 2000.
- [25] 김동호, *소비성향 측정도구의 개발 연구:서울시 여성의 소비성향 측정과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26] 윤채빈, 박수정, 김민규, “직장인의 여가소비성향 유형화 연구,” 여가학연구, 제15권, 제1호, pp.83-109, 2017.
- [27] 박민규, 박순희, “여자대학생의 여가소비성향 유형에 관한 연구,” 여가학연구, 제6권, 제2호, pp.83-107, 2008.
- [28] 송형숙, *20, 30대 남성 직장인의 여가소비성향 유형별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9] 조건상, 박충진, “수영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여가이득 및 생활만족의 관계모형,”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8권, 제4호, pp.201-211, 2009.
- [30] 이장희, *당구 참여자들의 여가몰입과 여가이득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31] 장경수, “대학생 스키리조트 이용객의 여가몰입, 여가이득, 생활만족과 재방문의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9호, pp.254-266, 2016.
- [32] 임재구, “여가스포츠 참여노인들의 여가인지가 여가몰입 및 여가이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1권, 제1호, pp.13-25, 2016.
- [33] 김준, 이근모,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여가기술 및 여가몰입이 여가이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1권, 제4호, pp.771-787, 2008.
- [34] 김경렬, “패러클라이딩 참여자의 몰입경험, 여가 유능감 및 여가이득의 인과관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0권, 제6호, pp.215-255, 2016.
- [35] 이상덕, 임영삼, “가속형 대학생이 인지하는 여가유능감과 생활만족 및 여가이득과의 구조적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5권, 제4호, pp.7-18, 2011.
- [36] 김지영, 박인실, 김수현, “교양 댄스 강좌 참여 대학생들의 여가유능감이 여가이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7권, 제1호, pp.83-96, 2012.
- [37] 박중서, *지방 행정 공무원의 여가태도가 여가이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8] 김명희, 박중서, “지방행정공무원의 여가태도가 여가이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포츠科學論叢, 제18호, pp.13-21, 2011.
- [39] 권지은, *아동기 가족의 가족여가활동 실태와 가족여가 만족도 및 장애들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40] 황경애, “주 5일 근무와 가족여가에 관한 기혼여성들의 인식 연구,” 진주산업대논문집, 제44권, pp.91-107, 2005.
- [41] B. L. Driver, “The North American experience in measuring the benefits of leisure,” Proceedings National Workshop on Measurement of Recreation Benefits, 1990.
- [42] 윤소영,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

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제4호, pp.189-201, 2009.

[43] 전영숙, “노인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제5권, 제1호, pp.137-150, 2008.

저 자 소 개

주 영 애(Young-Ae Ju)

정회원



- 1985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사)
 - 1987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석사)
 - 1992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학(이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생활문화, 예절교육, CS

홍 영 윤(Young-Yun Hong)

정회원



- 1992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문학사)
 - 2012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학과(문학석사)
 - 2017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생활문화, 서비스경영, 여가, CS